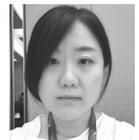


## 서울, 경기지역의 서원 Seowon in Gyonggi province



김 지 흥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사무관  
Kim, Jihong / Deputy Director, World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jihongkim@cha.go.kr

### 1. 들어가며

지난 7월 6일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세계유산의 등재는 그동안 ‘붕당의 소굴’로 대표되는, 서원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원의 건축물과 환경뿐 아니라 관련 전통을 어떻게 현대에 맞추어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는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건립연대순)의 총 9군데의 서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서원으로서 ‘서원’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시설이 한국에서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모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과 주변경관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얼핏 보기에는 전국의 대표서원이 고르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서원’으로 포함된 서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중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경기지역의 서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조선시대 수도였던 서울 도성 안은 성군관이나 학당과 같은 관학이 중심으로, 서원이 건립되지 못하였다. 현재 서울에 위치하는 서원 혹은 서원터의 경우 원래 경기지역 서원으로 건립되었다가 서울의 행정구역이 경기도로 확대되면서 현재의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된 경우이다.

또한 서원의 건립이 경상도 지역에서 시작하여 향촌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서원의 건립을 주도했던 사

림은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간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최초의 사액서원인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 서원’을 모체로 하며, 이황의 요청으로 1543년 ‘소수서원’이라는 왕의 사액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서원은 영남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 유림에 의해 전국의 향촌으로 퍼져 나갔다. 서원은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토론하는 장소였을 뿐 아니라 향촌에 성리학을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1)</sup>

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서원이 포함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물리적인 보존상태 때문이다. 원래 서울 도성 내에는 세계유산은 심사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 가치를 전달하는 주요 속성에 대한 신뢰성 - 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유산의 의미를 담고있는 유산의 주요 요소의 물리적 유지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도시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지역 서원은 원래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선시대 철폐되거나 전쟁 피해로 원래의 모습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새롭게 복원된 건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전체 서원의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서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즉 ‘완전성(integrity)’의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용인 심곡서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경관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서울, 경기 지역의 서원은 조

1) 이우종, 경상도의 초기 서원건축: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교육시설>, 25(6), 2018.11, pp.13-14.

선시대 정치 변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서원의 현대적인 활용 부분에 있어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문화유산이다.

## 2. 경기도 지역 서원의 설립배경

경기지역의 서원건립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16세기 중엽 서원의 초기 건립과 향촌에서의 정착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과는 다른 맥락에서 건립되었다. 경기지역 서원의 건립은 선조 때에 본격화되는데, 이 때는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화를 당한 사람들의 신원회복이 이루어지고, 조광조의 문묘배향 논의가 이루어진 때였다. 선조 때 경기지역에는 총 6개소의 서원이 창건되었는데, 이 중 1573년 창건된 양주 도봉서원이 이듬해에 경기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사액서원이 되었다.

표 1. 선조 연간 경기지역 서원 건립  
(증보문헌비고를 바탕으로 작성, 조준호(2007) 논문에서 재인용)

지역	서원명	건립	사액	제향인물	비고
파주	파산서원	선조1년	효종1년	성수침	조광조 문인
양주	도봉서원	선조6년	선조7년	조광조	김광필 문인
개성	송양서원	선조6년	선조8년	정몽주	
용인	충렬서원	선조9년	광해군1년	정몽주	
여주	기천서원	선조13년	인조3년	김안국	김광필 문인
지평	윤계서원	선조27년	숙종40년	조성, 조육	조광조 문인

조선시대 건립된 서원의 전체 숫자는 자료에 따라 900여개소에 이르는 등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대략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면, <조두록>, <문헌비고> 등의 문헌을 토대로 하여 파악된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적 분포는 [표 2]와 같다. 총 400여개소 중 약 40퍼센트 가량이 경상도에 위치하며, 경기도에는 10퍼센트 정도가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경기지역 서원이 수적인 열세에 비해 90퍼센트를 상회하는 높은 사액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높은 사액률은 경기지역 서원 건립과 관련된 인물들의 중앙 정계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숙종 때에 이르면 경기지역은 각 당파에서 경쟁적으로 서원을 세우는 장소가 되어 노론, 소론, 남인의 서원이 두드러지게 경쟁하는 지역이 된다. 숙종 원년에서 19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경기도 지역 서원의 전체적인 분포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서원이 고르게 건립되다가 숙종 20년 이후 남인의 몰락하면서 남인계 서원의 건립은 전무해지

고 노론, 소론 양당의 경쟁이 시작된다. 서원의 첩설이 금지되고, 환국으로 인해 정세가 급변하면서 기존 서원에 새로운 인물을 추가 배향하거나, 기존 인물을 퇴출하거나 다시 배향하는 등의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지역의 서원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2. 조선시대 건립된 서원의 지역적 분포 및 사액 비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원' 내 자료 재편집)

	건립 (개소)	사액 (개소)	사액비율 (%)
경상도	173	151	87.3
전라도	77	32	41.6
충청도	60	33	55.0
경기도	41	38	92.7
황해도	22	17	77.3
강원도	13	4	30.8
평안도	18	13	72.2
함경도	13	7	53.8
합계	417	200	48.0

## 3. 경기도 대표 서원 : 도봉서원

양주의 도봉서원(현재 서울 도봉산 기슭에 위치)은 조광조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서울 인근의 손꼽히는 경승지에 터를 잡았다. 1573년에 당시 양주목사로 부임한 남언경의 주도로 도봉산 영국사 터에 사우를 건립하였으며, 이듬해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도봉서원은 대원군 때 훼손된 뒤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지 못하지만, 장소의 역사성과 유학자들이 남긴 주변의 각석 등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경기지역은 서울의 직할지로 중앙정계를 주도하는 세력의 본거지였다. 따라서 도봉서원의 건립으로 대표되는 경기지역의 서원 건립은 사람의 중앙 정계 진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원 건립의 확대 과정과 경기지역으로의 진출은 훈구와 사람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의 사람의 권력확대와 분과 과정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고려 불교사회에서 조선 유교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영주 소수 서원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불교 사찰이 있던 터에 서원이 들어섰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데 2012년 발굴 결과 서원 건물지와 이전의 사지가 확인되었으며, 불교 관련 유물도 출토되었다. 발굴 결과 후대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당과 서재로 추정되는 건물지 이외에 강당지와 삼문 등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지만, 조선후기의 많은 그림들에서

도봉서원을 그리고 있어 서원의 규모와 배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 중 [그림 1]은 이방운(1761-1822이후)이 그린 <도봉>의 일부로 도봉서원의 건축적 면모를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래쪽 진입로에서부터 누마루, 강당, 동서재, 사우 순으로 높은 곳에 배치하고, 강당 우측 한켠에 계곡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자를 두었다. 동서재가 강당과 사우 사이에 위치하여, 사당 삼문 앞이 건물로 둘러싸인 마당 공간이 된다. 사우는 3칸으로 별도의 담장과 삼문으로 구획되어 있고, 강당은 전면 4칸에 양쪽 2칸은 방인데 그림 상에 온돌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누마루의 한쪽엔 방을 둔 것으로 보인다. 누마루와 동서재에는 모두 난간을 둘렀다.

도봉서원은 조선시대 경기지역의 수원(首院)으로 꼽히었으며, 서원으로 숙종대에는 상소를 통한 격렬한 찬반논의 끝에 송시열이 추가 배향되는 등 봉당간 갈등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빼어난 명승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며, 조선후기 도봉산 그림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였으나,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 1903년 유림들이 단을 설치하고 향사를 다시 지내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1972년 도봉서원재건위원회에서 복원했던 사당은 2012년 발굴을 위해 철거되었다. 발굴사업은 2009년 수립된 도봉서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서원의 전반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발굴 과정에서 예상 외로 고려시대 불교 유물들이 대거 출토됨에 따라 처음 계획은 중단되고, 지속적인 발굴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림 1. 이방운, 도봉(부분), 개인소장  
(출처: www.daljin.com)

### 3. 고려의 옛 수도에 세워진 서원 : 자운서원

고려에서 조선시대로의 사회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경기도 개성의 송양서원도 특기할만한 사례이다. 송양서원은 도봉서원과 같은 해에 건립되었고, 사액은 1575년에 받았다. 송양서원은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배향하고 있는데, 고려 수도 개성 자남산 기슭에 있었던 정몽주의 옛 집자리에 서원을 설립한 경우이다.

지리적으로는 고려시대의 수도인 개경 역시 조선시대 경기지역에 속하였다. 고려말 이미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개성에는 성균관, 서원 등의 시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개국 세력과 신진사대부의 갈등이 가장 고조되었던 고려말의 역사적 상황은 조선시대 사립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려말 유학자들과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개성 성균관은 향교로 격하되었지만, 서울의 성균관의 모체이자, 더 오래된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고려말 도학자이자 충신인 정몽주는 조선초부터 매우 존숭되었으며, 사림의 요청에 의해 1517년 문묘에 배향되었다. 정몽주의 문묘배향과 서원에서의 배향은 사림세력의 고려말부터 이어지는 정통성을 세운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소수서원에 이은 조선의 두 번째 사액서원은 정몽주를 배향하는 영천의 임고서원이었다는 점에서도 조선대에 고려시대 성리학자들의 존숭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운서원은 개성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정몽주가 죽음을 당한 선죽교가 가까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몽주의 충절을 기념하기도 도 최적의 장소였다. 여러 차례의 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건국 세력과 대립하다 죽음을 맞이한 정몽주의 일화는 사림의 의리명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의 수도가 개성에서 서울로 완전히 옮겨 완전히 옮겨간 뒤 개성의 많은 부분은 쇠락되어 있었다. 특히 성곽 인근의 주택



그림 2. 송양서원 전경(『조선고적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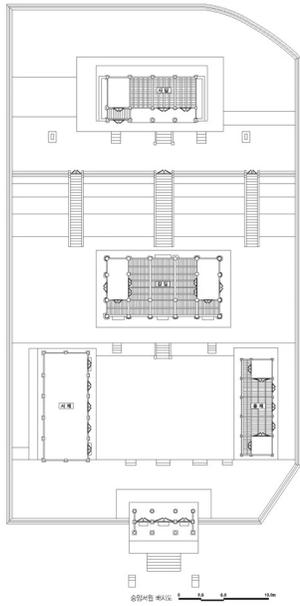


그림 3. 송양서원 배치도(국립문화재연구소)

들은 관리되지 못하고 빈터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남겨져 있던 정몽주의 옛집 자리에 서원이 건립되었다.

지금 현재로는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자세한 현황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만, 일제강점기 『조선고적도보』나 2007년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보고서를 통해 개략적인 정보는 파악 가능하다.

배치도에서 보다시피, 사당, 강당, 동서재의 배치는 다른 서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며, 다만 경사가 심한 곳에 입지하고 있어 사당과 강당 사이의 단차계 매우 크고, 강당과 동서재 영역도 별도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재의 경우 동재는 가운데 마루방 3칸을 두고 양쪽에 각 1칸씩의 방을 두었으나, 서재는 마루나 퇴 없이 전체가 통칸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사당의 구성이다. 기본적인 3칸 사당 구성에 더해 왼편에 한칸의 방을 두었으며, 측벽은 전체를 화방벽처럼 구성하고, 눈썹지붕을 달았다. 송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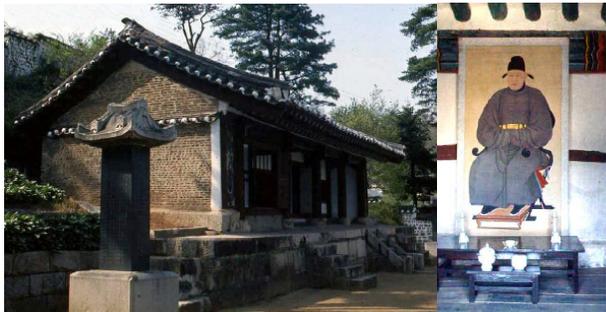


그림 4. 송양서원 사우와 정몽주 영정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신청서)

원을 포함한 북한 지역의 서원의 경우 좀더 현황에 대한 자료와 현장조사가 진행되면 한국 서원 건축의 유형을 재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마치며

이 글에서는 남부지역 향촌서원에 비해 덜 조명되어 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서원이 갖는 역사적 맥락의 특징을 살피고, 대표적인 두 서원 - 양주 도봉서원, 개성 자운서원 - 을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근현대기를 거치며 사립의 전통을 이은 유림의 규모는 대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력의 상승, 지역유림이나 문중의 기념사업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수의 서원이 복원 혹은 건립되었다. 전국의 현존서원은 637개로 파악되며(『한국서원총람』(2011)), 경기지역에는 20여곳의 서원이 존재한다.

소수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서원은 교육기능이나 공공적인 역할 보다는 정기적인 제향과 유림 혹은 문중의 소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용인 심곡서원이 다양한 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서원의 역사를 쉽게 전달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전통문화 체험을 넘어서는 오늘날의 장소성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은 경기지역 서원에서 더욱 다양하게 실현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III - 일반건축편, 2002
2.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3. 이수환, 포은 정몽주의 정치적 위상과 역사적 평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학술대회, 2011
4.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서울 도봉서원 복원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2
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6.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적 성격: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pp.5-27, 2007
7. 조준호,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논쟁과 그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3, pp.85-115, 2002
8.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2014.
9. 한희숙, 조선 초기 개성의 경관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62, pp.35-69, 2012